



소비자는 궁금하다. '식품첨가물 정말 안전한가요?'

식품첨가물 성장은 소비자들의 오해 없어야 가능



글_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ihk1234@hanmail.net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그림1)'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식품첨가물(화학물질)을 먹고 있을까? 안전하다고 확인된 것들만 사용하니 믿어도 될까? 사용량이 허용치를 넘기지 않았으니 안전할까?, 무첨가, 무보존, 무착색제 제품 믿어도 될까?' 등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첨가물 피해사례'를 치면 많은 카페와 블로그, 뉴스 등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게 된다. 앞서 소개한 책 제목만 보더라도 식품첨가물은 위대한 속임수이니 절대로 사용하면 안될 물질이다. 실제 매스컴 등은 식품첨가물의 다양한 부정적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부정적 인식

첫째, 인체에 해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가공식품만 먹으면 아토피성 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섭취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안전하다고 판정이 난 MSG(Mono Sodium Glutamate)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소위 '중국음식증후군'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나요?

비단 중국음식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학조미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외식 음식을 먹은 후 생기는 두통, 메스꺼움, 가슴통증, 저림, 졸음, 무력감, 심장박동 증가 등을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이를 중국음식점증후군(Chinese Restaurant Syndrome)이라고 합니다.

▶ ◀ <출처 : <http://blog.daum.net/yeshira/1323>



▶ ◀ 1.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

모방송 프로그램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고 소개했고 경북 포항시는 'MSG 사용 안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기관 간에도 MSG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보니 이런 내용을 접한 소비자들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MSG가 몸에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업체들도 안전한 첨가물임에도 '우리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의 '無 MSG'광고로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천연조미료 사용을 권장하기도 해 이를 본 소비자는 당연히 MSG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했으나 부산물로 인해 인체에 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례이다. 2007년에 문제가 된 사례로 비타민 음료에 첨가한 안식향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결합해서 부산물 벤젠이 형성된 것이다. 벤젠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물질이다. 2013년 4월 독일에서도 유명브랜드 청량음료에 벤졸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 양은 2~6.8 $\mu\text{g}/\text{L}$ 로 식수의 허용기준치($1\mu\text{g}/\text{L}$)를 초과하였다. 독일연방평가원이 2005년도에 이미 벤조산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비타민 C를 첨가하면 벤졸이 생성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으나 여전히 청량음료에 대한 벤졸의 허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가 없는 음료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고 보면 부산물에 의한 피해우려는 계속될 것 같다.

셋째, 식품첨가물로 승인이 된 첨가물이 허용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과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실제 식용색소 적색 2호, 적색 102호, 적색 40호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외되었다. 소비자들은 혹시 지금 허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색 2호 등과 같이 나중에 안전성이 결여된 식품첨가물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착색료 중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유럽에서도 검토 중이고 영국식품기준청(FSA)에서는 일부 합성착색료 및 보존료를 어린이용 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섭취허용량 불신, 화학물질로 인식

넷째는 일일 허용 섭취량에 대한 불신이다. 정기화(2009)는 '미량이지만 식품첨가물이 식품 본래 성분이 아닌 물질로 일생 동안 섭취한다는 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첨가물 자체에 본래 목적이 아닌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